

日本語	韓国語
<p style="text-align: center;">日韓和解と平和プラットフォーム 8.15 光復・敗戦 76 周年日韓宗教・市民社会の共同声明</p> <p>日韓和解と平和プラットフォームは、日韓の対立を解消し、平和な東アジアの共同体を作るために 2020 年 7 月 2 日に発足し、2020 年 8 月 12 日に「8.15 光復・敗戦 75 周年日韓共同宣言文」を発表しました。</p> <p>1 年が経った 2021 年現在、東アジアの状況は依然として平和に向かって進むことができないまま、対立と葛藤の中にあります。日韓の間で対立の溝はさらに深まり、拡大しており、日韓市民社会のあちこちから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ます。</p> <p>8.15 光復・敗戦後、米国主導で作られた日本と韓国の戦後秩序は根本的な問題を抱えています。米国は日本の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過去を覆い隠し、むしろ戦略的同盟者とし、韓国を分割占領した米軍政は抗日独立運動を率いてきた民族勢力を徹底的に弾圧しました。結局、8.15 光復は、朝鮮半島が真っ二つになる悲劇的分断 76 年の出発点になりました。</p> <p>安倍・菅政権は「米国とともに戦争のできる国づくり」をめざして日本国憲法 9 条をはじめとする憲法改悪の試みを進めています。このような日本の国家主義と地域覇権を追求する極右政治は、韓国、中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朝鮮)など周辺国の安全を脅かすだけでなく、日本の民主主義への重大な挑戦です。平和憲法 9 条を守り、生かすことは、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基盤であり、日韓の市民社会の最も緊急な課題であると言えます。私たちは平和憲法 9 条を守る日本の市民社会の闘いが東アジアに平和の声として広まっていくことを信じて共同の連帯と協力を続けていきます。</p> <p>平和協定の締結による朝鮮戦争の終結はいまだに実現できず、2018 年の朝鮮半島の平和プロセスの成果である南北・朝米合意は、2019 年ハノイでの朝米会談の決裂以降、事実上止まっている状態です。幸いなことに、2021 年 5 月 21 日の米韓首脳会談の声明を通じて、バイデン政府がシンガポール宣言と板門店宣言を継承することとなり、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の再開の種火は確保しましたが、対朝鮮制裁と米韓合同軍事演習、そしてコロナ禍などがその行く手を遮っています。特に、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に対する日本の敵対的介入が、ボルトン回顧録と菅政府の日米首脳会談などで繰り返して明らかになっており、日本の宗教・市民社会の支持と連帯が、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の実現の貴重な資産であることを改めて確認します。一方、7 月 27 日南北直通連絡線が復元されました。朝鮮半島の平和に向けた南北の対話再開を歓迎し、復元された直通連絡線が南北間の交流協力と朝米間の対話につなが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私たちは、韓国の宗教・市民社会が展開している終戦宣言と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キャンペーンが朝鮮半島の平和と非核化のための先決課題であることを共同で確認し、世界市民社会ととも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きます。</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8.15 광복/패전 76 주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공동성명서</p> <p>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0 년 7 월 2 일 발족하였으며 2020 년 8 월 12 일, <8.15 광복/패전 75 주년 한일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p> <p>일 년이 지난 2021 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어, 한·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8.15 광복/패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덮고 오히려 전략적 동맹자로 삼았으며, 남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민족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다. 결국 8.15 광복은 한반도가 두 동강 나는 비극적 분단 76 년의 출발점이 되었다.</p> <p>아베·스가 정권은 ‘미국과 함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 를 지향하면서 일본 헌법 9 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극우정치는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화헌법 9 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한일 시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 헌법 9 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이 동아시아에 평화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으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p> <p>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2018 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인 남북, 조미 합의는 2019 년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다. 다행히 2021 년 5 월 21 일 한미정상회담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을 위한 불씨는 확보하였지만,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개입이 불탄의 회고록과 스가 정부의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본 종교·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한편, 7 월 27 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의 소통 재개를 환영하며 복원된 통신 연락선이 남북 간 교류 협력과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의 종교·시민사회가 전개하고</p>

オバマ、トランプ、バイデン政府を経て、中国に対する米国の外交・軍事的圧迫は強まっており、米中対決は東アジアの平和秩序への重大な危険になっています。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とクワッドによる対中国封じ込めに日本はすでに参加しており、韓国もクワッド・プラスへの参加を要請されています。日米韓の軍事同盟に対する米国の要求の強まりと在韓米軍の役割の再評価、拡大などは東アジアの平和を全面的に揺さぶっています。これに対して私たちは深い憂慮を表し、米国の東アジア諸国間の対話を尊重することを期待します。

一方、日本政府は依然として、植民支配と侵略戦争から始まった過去清算の課題に対する責任を認めておらず、さらに歴史を歪曲して被害者を侮辱し続けています。平和の少女像に対する執拗な攻撃、持続する朝鮮学校への差別、五輪の旭日旗問題、「嫌韓」感情の拡散などは、日本政府の退行的な歴史認識にその根本的な原因があります。韓国と中国でも国家主義と愛国主義が次第に力を得て敵対感が高まっています。互いに対する誤解や小さな対立まで、ネット空間を中心に極端な対立に突き進むのが常です。このような国家主義的対立は、各国政府の政策だけでは解決できません。日韓両国の対立と葛藤、さらに東アジア各国の相互認識の改善と平和共同体づくりは、市民民主主義と平和勢力の拡大を通じてのみ、根本的な解答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私たちはラムザイヤー論文問題で現れた日米韓歴史修正主義者の行動、日米韓軍事同盟の強化のために日韓両国に被害者を排除し、歴史認識を棚上げにした政治的和解を迫る米国の動きに強い懸念を示し、平和と人権、民主主義のための市民勢力の連帯をさらに強化し、植民地主義の克服のための努力を続けます。私たちは、東アジア平和の実現に不可欠な正しい歴史認識の共有のため、韓日両国の青少年と市民に向けた歴史教育と平和教育を拡大し、青年文化交流と相互訪問などのように小さいながらも重要な実践を通じて、お互いに理解し合い、連帯するための努力を持続的に拡大していきます。

私たちは現在の日本と韓国の葛藤を解決し、東アジアの平和をつくっていくために、平和を願っている両国の市民の声を集めて実践し、平和への連帯の歩みを共に歩んでいきます。

私たちの要求：

- 日本政府は「戦争のできる国づくり」の試みと憲法9条をはじめとする憲法改悪を即刻止めるべきである。
- 日本政府は植民地支配と強制動員、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直視して、反省すべきである。また、法的責任を認めて被害者に謝罪すべきである。
- 日本政府は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民族差別を止め、朝鮮学校の高校授業料無償化と幼稚園・保育園の保育料無償化を直ちに適用すべきである。
- 日本政府は在日韓国・朝鮮人へのヘイトスピーチを放置してはならず、『表現の不自由展』への妨害を許してはならない。
- 日本政府は、沖縄の基地問題を直視し、基地のない沖縄の実現に努力すべきである。このために、辺野古新基地建設をただちに中止し、南西諸島の軍備強化を止めるべ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공동으로 확인하며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쿼드를 통한 대 중국 봉쇄에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 받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요구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명, 확대 등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비롯된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계속되는 조선학교 차별, 올림픽 욕일기 문제, ‘협한’ 정서의 확산 등은 일본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점점 힘을 얻어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작은 대립마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이같은 국가주의적 대립은 각 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호 인식 개선과 평화 공동체 만들기는 시민 민주주의와 평화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근본적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램지어 논문 문제로 드러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행태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 인식을 유보한 정치적 화해를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과 시민을 향한 역사 교육과 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 교류와 상호 방문 등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 시도와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 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멈추고 조선학교 고교수업료무상화와 유치원·보육원의 보육료 무상화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運営委員】

<日本>

- 渡辺 健樹 (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 渡辺 美奈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 石川 勇吉 (愛知宗教者平和の会)
- 小田川 興 (在韓被爆者問題市民会議)
- 北村 恵子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女性委員会)
- 金性済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総幹事)
- 白石 孝 (日韓市民交流を進める希望連帯)
- 平良 愛香 (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 武田 隆雄 (平和をつくり出す宗教者ネット)
- 中井 淳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 比企 敦子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教育部)
- 飛田 雄一 (神戸青年学生センター)

<韓国>

- 姜周錫 神父 (民族和解委員会の総務, カトリック主教会議)
- 辛承民 牧師 (局長, 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
- 鄭常德 教務 (中央総部の霊山事務所長, 円仏教)
- 金恩亨 副委員長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
- 孫美姬 共同代表 (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
- 安知重 執行委員長 (韓国進歩連帯)
- 嚴美京 統一委員長 (韓国進歩連帯)
- 申洙沆 運営委員長 (韓国基地平和ネットワーク)
- 尹淳哲 事務総長 (経済正義実践市民連合)
- 尹貞淑 共同代表 (緑色連合)
- 李娜榮 理事長 (正義記憶連帯)
- 李信澈 常任共同運営委員長 (亞細亞平和と歴史教育連帯)
- 李泰鎬 運営委員長 (市民社会団体連帯会議)

【事務局員】

<日本>

- くじゅう のりこ (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ネットワーク)
- 昼間 範子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 藤守 義光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総務)
- 渡辺多嘉子 (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 佐藤 信行 (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

정상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손미희 공동대표(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엄미경 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나영 이사(정의기억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타나베 미나(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오다가와 코(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김성재(일본NCC 총간사)

타이라 아이카(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나카이 준(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다 유이치(고베 청년학생 센터)

【실행위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후지모리 요시미즈(일본NCC총무)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재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김은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지중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신수연 운영위원장(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윤정숙 공동대표(녹색연합)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와타나베 겐주(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이시카와 유키치(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기타무라 케이코(일본NCC 여성위원회)

시라이시 타카시(일한시민교류추진희망연대)

타케다 타카오(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히키 아즈코(일본NCC교육부)

문성근 사무총장(홍사단)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하루마 노리코(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와타나베 타카코(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潮江亜紀子（外国人登録法の抜本的改正を求める神奈川キリスト者連絡会）

<韓国>

金英丸 対外協力室長（民族問題研究所）

文星根 事務総長（興土團）

梁多恩（韓国YMCA全国連盟）

韓喜琇（韓国YMCA全国連盟）